

## 四象醫學 臟腑論의 요점

孫思明\*·金振榮\*

四象의학의 장부론은 “五臟之心, 中央之太極”, “五臟之肺脾肝腎四維之四象”, 이는 곧 四象을 기초로 하고 太極整體 관점에서 人體장부와 組織기관의 구성과 生理功能, 病理변화 및 그 相互관계의 學說을 研究하는 것으로서 이는 四象의학 理論체계의 중요한 組成부분이다.

### 1. 人體器官

人體는 生命을 유지하기 爲하여 반드시 自然界物質을 접수, 容納하고 아울러 그를 人體를 위한 各種수요물질로 轉化하며 이를 人體의 生命活動中 수요에 따라서 供應한다. 그러므로 營養물질이 어떻게 人體에 接수, 容納과 轉化되어 가는 人體의 器官을 알아야 한다.

四象의학의 체계와 其他의학 체계는 다르다. 그러므로 그의 人體器官에도 其他의학체계의 人體器官과도 다르다.

四象의학에서 人體器官의 分類는 : 管類, 臟類, 前海類, 後海類, 腑類 및 肉體類로 나눈다. 管類에는 : 耳, 目, 鼻, 口가 있고 腸類에는 : 肺, 脾, 肝, 腎이 있으며, 前海類에는 : 津海, 膏海, 油海, 液海가 있다. 後海類에는 : 髓海, 膜海, 血海, 精海가 있다. 肉體類에는 : 皮, 肉, 筋, 骨이 있다. 胃脘, 胃,

小腸, 大腸은 身體前半部の 內에서 升, 停, 導, 降 運動을 하는바 이는 腑類이다; 頭, 手, 腰, 足은 身體後半部の 外에서 伸, 收, 放, 屈 運動을 하는바 이는 後海의 外伸이다.

四象의학에서는 “太極生兩儀, 兩儀生四象” 등 《周易》의 原理를 그의 理論 기초로 삼고 人體器官의 每一類를 모두 四象으로 分立하였다.

#### (1) 示表如下

| 四象<br>器官<br>類別 | 太陽 | 少陽 | 太陰 | 少陰 |
|----------------|----|----|----|----|
| 管類             | 耳  | 目  | 鼻  | 口  |
| 臟類             | 肺  | 脾  | 肝  | 腎  |
| 前海類            | 津海 | 膏海 | 油海 | 液海 |
| 後海類            | 髓海 | 膜海 | 血海 | 精海 |
| 腑類             | 胃脘 | 胃  | 小腸 | 大腸 |
| 肉體類            | 皮  | 筋  | 肉  | 骨  |
|                | 頭  | 手  | 腰  | 足  |

① 四焦 : 四象의학에서는 人體面部之外의 머리부터 軀幹까지 四個部分으로 나누어 四焦라고 한다.

② 上焦 : “肺部位在顛下背上”, 즉 後頭部에서부

\* 연변민족의약 연구소

터 背頓部位 까지이다; “胃脘部位在額下胸上”, 즉 額에서부터 兩腋橫線까지 以上の 部位이다.

③ 中上焦: “脾部位在脗 즉 肩背以下の 兩筋에서부터 肋脊凹陷以上の 部位까지이다; “胃部位在膈”, 즉 兩腋橫線以下부터 大臑 下脘穴까지 以上の 下胸上腹部이다.

④ 中上焦: “肝部位在腰” 즉 肋凹陷에서부터 腰脇部位이다; “小腸部位在臍”, 즉 허리와 배꼽 사이를 中下焦라 이른다.

⑤ 下焦: “腎部位在腰脊下” 즉 腰脊에서부터 尾骨部位에 이른다; “大腸部位在臍腹下” 즉 大臑 氣海穴以下에서부터 肛門의 小腹部에 이른다.

《周易》의 道理로서 말하면 전체 人身은 한개 太極이고, 나누어 말하면 天地人三極이다. 天은 上이고 地는 下이며 人은 中에 거해 있으므로 人身을 上, 中, 下三焦로 나누게 된다. 上焦는 天에 應하고, 中焦는 人에 응하며 下焦는 地에 응한다. 天地人三極之中에서 人在於中이어서 天地之道에 합한다. 그러므로 中焦의 下半部는 人部の 地에 해당하여서 이는 中下焦이다. 이로서 三極은 四象을 이루고 三焦는 四焦로 되었다. 四焦의 획분은 人體의 구성을 三極四象의 原理로 획분한 模樣式으로 四象의 학의 生理學기초가 된다.

## (2) 水谷四氣의 形成

수곡이 人體四焦前半部の 四腑에서 受納, 運行, 轉化된 四種物質形式을 수곡四氣라 한다. 수곡四氣는 溫氣, 熱氣, 涼氣, 寒氣이다. 수곡四氣의 形成은 반드시 수곡의 出納, 運行과 吸收, 轉化과정을 經過한다.

수곡의 出納 및 運行은 四腑에서 上으로부터 下의 順序로 進行한다. 地에서 얻은 수곡은 口로부터 胃脘에 들어가고 胃脘에서부터 下降하여 胃에 들어가면 다시 下降하여서 小腸에 들어가고 다시 下降하여서 大腸에 들어가며 肛門에서 나와서 地로 돌

아간다.

수곡은 四腑에서 上으로부터 下로 運行中에 吸收와 轉化하여 溫, 熱, 涼, 寒四氣로 된다. 그의 轉化에는 上에서부터 下의 順序로 하지 않고 다른 한개 規律로서 進行한다. 口에서 胃脘을 거쳐 곧추 胃에 들어간 수곡이 停蓄되면 熏蒸하여 熱氣가 된다. 胃에서 助長으로 들어간 수곡은 消導되면 平淡한 涼氣가 된다. 이것은 寒熱溫糧의 混一한 수곡이 변하여 수곡의 氣로되는 시작이다. 胃에서 熏蒸하여서 된 熱氣內에는 溫氣와 熱氣가 포함되어 이는 수곡의 陽氣이다. 小腸에서 平淡된 涼氣內에는 涼氣와 寒氣를 포함하여서 이는 수곡의 陰氣이다. 그러므로 胃는 수곡陽氣의 源泉이고 小腸은 수곡陰氣의 源泉이다. 이로서 수곡은 陰陽二氣가 分立하였다. 이는 곧 “太極生兩儀”이다.

陰陽二氣로 나누인 수곡의 氣는 進一步로 轉化한다. 熱氣中에 體輕 實清者는 胃脘에 上升하며 鼻에 들어간 天氣와 서로합쳐서 溫氣로 轉化한다. 熱氣中 體重 質濁者는 胃에 停蓄되면 熏蒸하여 熱氣로 변한다. 涼氣中 體重 質濁者는 大腸에 내려가서 寒氣로 변하고 涼氣中 體輕 質清者는 小腸에 吸收되어 鼻로 들어간 天氣와 서로 합쳐서 涼氣로 轉化한다. 이에 수곡의 氣化는 完成되고 四象은 分立된다. 溫氣는 太陽, 熱氣는 少陽, 涼氣는 太陰, 寒氣는 少陰이다. 이는 즉 “兩儀生四象”이다.

## (3) 人體의 兩氣系統

天地人三極의 道理로서 말하면 人身의 四焦는 上焦配天, 下焦配地, 中上焦配人之天, 中下焦配人之地이다. 四象의 學에서는 天人相合의 道理에 근거하고 天人互相滲透하여 人體內에서 天(上焦)은 人之地(中下焦)을 配合하여 天人循環을 形成한다. 地(下焦)는 人之天(中上焦)를 配合하여 人地循環을 形成한다. 天人循環을 보면 《周易》 “陽施陰受”의 原理로 天施乾而人受坤하여 天地定位의 先天八卦式을 形成하

였다. 그러므로 上焦는 主天氣하고 中下焦는 主地氣한다. 人地循環中에는 人(中上焦)施離而地(下焦)受坎하여, 日月懸象의 後天八卦式을 形成한다. 그러므로 中象焦主火하고 下焦는 主水한다. 수곡의 溫氣, 涼氣는 地의 수곡과 天의 清氣가 서로 합친 수곡이고 이는 수곡氣中의 氣液이다. 涼氣는 氣液의 陰이고 溫氣는 氣液의 陽이다. 氣液之陰은 小腸에 吸附되어서 積聚하고 氣液之陽은 呼氣로 胃脘에서 흡어진다. 이로써 胃脘과 小腸은 呼吸系統을 形成하였다. 수곡의 熱氣와 寒氣는 天의 清氣가 합치지 않은 純水谷之氣로서 그는 수곡의 陽氣와 수곡의 陰氣이며 體重 質潤한 陽中之陰과 陰中之陰氣이다. 그 氣는 濁烈柔重하여 氣液으로 변치 못한다. 熱氣는 胃에 停蓄하고 熏蒸하여 수곡을 收納한다. 寒氣는 大腸으로 下降하며 水谷餘滓를 내보낸다. 이렇게 胃와 大腸의 出納系統이 形成된다.

## 2. 四氣의 運化와 그集團

### (1) 水谷溫氣의 運行轉化와 그 집단

수곡의 溫氣는 四腑中에서 제일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胃脘에서 津으로 化하여 舌下에 들어가 보존된다. 때문에 胃脘은 수곡의 溫氣를 津으로 化하게 하는 곳이고 舌下는 津을 저장하는 貯藏庫이다. 이를 津海라한다.

津海에 저장된 津은 진일보로 清氣와 濁滓로 갈라진다. 津中에 濁滓는 胃脘으로 돌아 들어가서 老衰되고 손상받은 부분을 更新할 뿐더러 胃脘全體를 補充하고 津中의 清氣는 津海로부터 耳로 나와 더 한층 변화하여 水谷溫氣의 다른 일종物質形式인 神으로 변한다. 四象의학에서 神은 耳가 聽力을 發揮할 때 使用하는 物質이다. 耳가 사용하고 남은 餘有의 神을 腦에 보내어 보존한 것을 髓라고 하는데 髓가 腦에 모이고 모여서 髓海를 이룬다. 故로 耳는 津의 清氣를 髓로 化하게 하는 곳이고 腦에는 髓(濃

縮된 神)를 貯藏하는 貯藏庫이다. 이를 髓海라 한다.

髓海에 貯藏된 髓는 髓汁인데 髓汁이 또 清者와 濁滓로 갈라져서 清者는 內로 肺에 들어가서 肺元으로 化한다. 肺元은 肺가 哀情을 發하는 物質基礎이다. 濁滓는 外로 皮毛에 나와서 老衰되고 損傷받은 皮毛를 補充한다.

以上은 수곡溫氣가 運行하고 轉化하는 路線이다. 무릇 수곡의 溫氣를 運行하고 轉化하는데 참가하는 기관은 모두 이 집단에 속하는데 그들로는 : 肺, 胃脘, 舌, 耳, 頭腦와 皮毛이다. 여기에서 이 집단四象의 代表가 肺이므로 이들을 肺黨이라한다.

### (2) 水谷熱, 冷, 寒氣의 運行과 그集團

수곡熱, 冷, 寒氣는 각각 胃, 小腸, 大腸에서 膏, 油, 液으로 化하여 膈間, 兩乳, 臍, 前陰으로 들어가 貯藏한다. 故로 胃, 小腸, 大腸은 수곡의 熱, 冷, 寒氣를 膏, 油, 液으로 化하게 하는 곳이고 膈間兩乳, 臍, 前陰은 化된 것을 貯藏하는 貯藏庫이다. 膏, 油, 液 貯藏庫를 각기 膏, 油, 液海라한다.

膏海, 油海, 液海에 저장된 膏, 油, 液은 清氣와 濁滓로 갈라져서 濁滓는 도로 胃, 小腸, 大腸으로 돌아 들어가서 老衰하고 損傷받은 부분을 更新하고 胃, 小腸, 大腸을 補充하고 清氣는 각각 目, 鼻, 口로 나와 氣, 血, 精으로 化한다. 氣, 血, 精은 目, 鼻, 口가 視力, 嗅力, 味力을 發揮할때 使用하는 物質이다. 目, 鼻, 口가 使用하고 남은 餘有의 氣, 血, 精은 背脊, 腰, 膀胱으로 보내어 보존된 것을 膜, 血, 精이라 하는데 膜, 血, 精이 背脊, 腰, 膀胱에 累積하여 膜海, 血海, 精海를 이룬다. 故로 目, 鼻, 口는 氣, 血, 精을 凝膜, 凝血, 凝精으로 化하는 곳이고 背脊, 腰, 膀胱은 貯藏庫이다.

膜海, 血海, 精海에 貯藏된 膜汁, 血汁, 精汁은 또 清者와 濁滓로 갈라져 清者는 內로 脾, 肝, 腎에 들어가 各其 脾元, 肝元, 腎元으로 化하고 濁滓는

外로 筋, 肉, 骨로 돌아가서 老衰하고 損傷받은 筋, 肉, 骨을 更新하고 筋, 肉, 骨을 補充한다. 以上은 수곡의 熱, 涼, 寒氣가 運行하고 轉化하는 路線이다. 무릇 水谷의 熱, 涼, 寒氣을 運行하고 轉化하는데 參加하는 기관은 모두 各其 그 集團에 속하는데 수곡 熱氣를 運行轉化하는데 參與者들로는 : 脾, 胃, 膾間兩乳, 目, 背脊, 筋이고 이를 脾 黨이라하고 수곡 涼氣를 運行하고 轉化하는데 參與者들로는 : 肝, 小腸, 臍, 鼻, 腰, 肉이고 이를 肝 黨이라하며 수곡 寒氣를 運行하고 轉化하는데 參加하는 者들로는 : 腎, 大腸, 前陰, 口, 膀胱, 骨이고 이를 腎 黨이라한다.

### 3. 四官의 작용

耳는 津을 神으로 化하는 곳이다. 耳가 津海의 淸氣를 取出하여 神을 가공해 내는 것은 완전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聽覺과 不同한 四象醫學에서 所謂 廣博天時하는 獨特한 聽力에 의거한다. 故로 耳가 聽力을 발휘하면 神이 생기고 耳가 聽力을 發揮하지 않으면 神이 產生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聽力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遠聽) 神의 生成이 왕성해지고 올바르게 못하게 사용하면 (近聽) 神生成이 저하될 뿐더러 神을 消耗시킨다. 이것이 바로 東醫壽世保元에서 말하는 … “遠則神生也 ; …遠則神耗也”다.

耳가 聽力으로 만들어낸 神이 充滿되는 곳은 上焦이다. 故로 上焦는 神이 있는 곳이다. 上焦에 있는 神은 일면으로는 聽力의 動力이 되어 소모되고 나머지는 頭腦에 注入되어 저장된다. 頭腦에 저장된 神이 곧바로 賦다. 賦는 實質上 濃縮된 神이다. 賦가 累積된 것이 賦海이다. 神과 賦의 구별점은 神은 動態이고 賦는 靜態이다. 神은 使用中에 있고 賦

는 저장된 물질이다. 神은 耳에 使用되고 賦는 肺와 皮毛에 吸取된다.

目, 鼻, 口는 產生되는 物質과 使用이 耳와 다를 뿐 모든 질차는 耳와 같으니 省略해도 짐작할 줄 믿는다.

### 4. 心

四象의학의 心은 一身의 主宰이다. 그는 官, 臟,, 前海를 통일, 영도한다. 四官은 그의 控制下에서 四性을 발휘하며 四臟은 그의 公제하에서 四情을 발휘하고 四前海는 그의 公제하에서 知를 발휘하고 四後海는 그의 公제하에서 行을 발휘한다. 그러나 心은 높은 위에서 所欲대로 하는 心이 아니고, 이는 官, 臟, 前海, 後海에 累積한 性情知行의 기초상에서 自我控制作用을 발휘하는 心이다. 그러므로 心은 一身을 기초로한 自我控制器管이고 자아공제의 능력을 이용하여 全신을 公제하고 一身四象의 太極이다. 心은 四官, 四臟, 前海,, 後海에서 津, 沍, 油, 液, 神, 氣, 血, 精을 生成케하는 주재이다. 그러므로 心은 體內一切物質을 生成하는 主宰이고 主宰心은 곧 靈明主宰心이다.

“負隅背心…光明瑩澈”은 바로 이 뜻이다.

### 參 考 文 獻

1.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博文書館, 京城 1927.
2. 姜孝信 : 東樞撮要, 醫學社, 漢城 1984.
3. 元持常 : 東醫四象新編, 文友社, 京城 1933.
4. 朝鮮圖書株式會社編輯出版, 原本周易, 京城 1982.